

우리나라 가스사고의 문제점 및 그 대책

한국가스안전공사 김 외 곤

우리 나라에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게된 유래를 살펴보면 1961년도에 최초로 「대한와사산업주식회사」라는 LPG를 수입·판매하는 회사가 설립되어 일본 「탄곡」 석유회사와 정식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 가스를 보급하기 시작하였고, 그후 「문화가스」는 일본의「환선」이라는 회사와 수입계약을 「제일가스」는 일본 「출광석유」와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 나라에 연간 400~500톤 정도의 LPG가 용기에 충전된 상태로 수입되어 일부 부유층이 가스난로의 연료로 사용되었으며, 이때는 국내에서 용기등 각종 가스용품의 제조가 전무한 상태로 전량 수입품에만 의존하였고, 또한 가스용품이 사치품으로 간주되어 가스를 사용하는 집은 주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던 때였다.

또한, 가스가 최초로 보급될 당시에는 가스에 대한 상식과 사용법을 아는 사람도 극히 드

물었고 누구하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취급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과 홍보나 교육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담 넘어 남의집 불구경하는 식으로 우리 모두가 무관심하던 때였습니다.

그후 1964년도에 우리 나라에도 최초로 정유회사인 「대한석유공사」 울산공장에서 LPG를 생산하면서 부터 가정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되었고 LPG 소비량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가스 사고 또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가스에 대한 사용방법이나 용품의 취급방법을 누구하나 체계적으로 교육·홍보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관심을 가져 본 기관도 없어 가스는 그저 연탄보다 취급이 간편하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는 편리한 연료로만 인식되어 일반 가정연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한편, 일반고압가스는 1927년 일본인이 흥남에 설립한 『조선질소비료(주)』에서 비료 생산과정에서 수반되는 산소·수소·질소·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등이 생산되면서부터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1928년 최초로 아세틸렌을 생산하는 본궁화학이 설립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고압가스가 보급되기 시작되었다.

또한, 1937년 영등포에서 『제국산소』가 설립된 것을 계기로 많은 산소공장이 건설되기 시작했으며, 1945년 해방과 더불어 6.25전쟁을 계기로 고압가스산업이 활발하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 초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등 전국 각처에 산소공장이 설립되었으며, 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더불어 고압가스공업은 놀라운 성장을 했으며, 사용처도 산업전분야에서 다양해졌다.

[표1] 60년대 가스별 사고현황

(단위 : 건)

구 분	L. P. G.	도시가스	일반가스	합 계
건 수	19	0	53	72
점유율(%)	26	0	74	100

※ 60년대는 우리나라에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았음.

[표2] 사용처별 가스사고현황

(단위 : 건)

구 분	주택	요 식 업 소	공 장	허 가 업 소	도 로 배 관	기 타	합 계
건 수	1	7	10	41	2	11	72
%	1	10	14	57	3	15	100

※ 주택사고 1건은 아파트 실내 LPG 10Kg용기보관중 발생한 사고임.

[표3] 원인별 사고현황

(단위 : 건)

구 분	취 급 부주의	불 량 제 품	시 설 미 비	불 법 고 의	기 타	합 계
건 수	48	16	7	1	0	72
%	67	22	10	1	0	100

※ 불법사고 1건은 불법 충전에 의한 사고임.

[표4] 형태별 사고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설	폭 발	화 재	파 열	기 타	합 계
건 수	2	51	13	5	1	72
점유율(%)	3	71	18	7	1	100

[표5] 인명피해

(단위 : 명)

구 분	L P G	도시가스	일반가스	합 계
사 망	2	0	41	43
부 상	82	0	84	166
계	84	0	125	209

◇ 60년대의 가스사고를 상세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표5에서 나타나듯이 60년대에는 LP가스가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일반가스 사고가 LP가스 사고의 4.5배나 발생하였고, 일반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카바이트를 물에 용해해서 용접용으로 사용하던 아세틸렌가스 사고가 대부분 이었다.

60~70년대에는 아세틸렌 가스의 구입 가격과 용기 구입 가격이 비싸고 용기를 구하기도 어려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카바이트를 물에 용해시켜 일반공사장이나 소규모 철공소 등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탄통(무기보관상자)이나 철판으로 카바이트 발생기를 만들어 물에 카바이트를 용해시켜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켜 사용하다 소홀이 취급하여 발생기가 폭발하여 일어나는 사고가 가장 많았던 때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가스를 취급하는 대상도 복잡 다양해지고 가스를 취급하는 회사도 여러 곳 생기고,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국민의 문화적인 생활의 요구가

육구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주부들의 주방(부엌)환경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가스 보급률이 매년 20~30%씩 증가하고 가스렌지와 조정기, 호스, 용기 등 가스 관련 기기들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생기면서 대중연료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도시민을 위하여 도시가스회사를 설립하여 시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가스사고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 가스연료의 과도기를 접어들면서 70년대를 대표하는 사고가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중심 가에서 크리스마스날인 1971년 12월 25일 오전 9시 50분 경에 특급호텔 "대연각"에서 강한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하늘을 치솟고 시커먼 연기가 온 하늘을 뒤덮인 채 이호텔투숙객들이 탈출하기 위하여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람 창문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 호텔옥상으로 대피하여 헬리콥터로 구조되는 사람등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조용한 서울 중심가가 갑자기 아비규환이 되어 크리스마스날 오전에 전세계의 보도진은 대한민국 서울

로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이때 불의에 의한 사고로 사망자만도 165명 부상자가 67명에 달하였으며, 재산피해액도 1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된 우리나라 최대의 LP가스에 의한 화재사고이며, 사고는 2층 커피숍 주방에서 20Kg LPG용기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용기 관리 소홀로 가스가 누설되어 사용 중이던 가스렌지 불꽃에 인화·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로서 지금도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여러 생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사고가 있었으나, 국민들이 그 사고당시 며칠동안만 기억하다 잊어버리고 당국에서도 별다른 대책 수립은 없었다.

이사고 이후 8개월이 채되지도 전에 1972년 8월5일 동대문구 청량리 로터리에 있는 대왕코너 대형 화재사고 또한 LPG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6명에 부상자 80여명이며 재산피해 3억원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두 사고 모두가 용기 실내보관 및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대표적인 사고였다.

이러한 대형 사고를 겪은 정부에서 가스안전관리업무를 담

담할 인력과 기술을 전담 기관 설립에 필요성을 인식하여 1974년 2월 1일에 압축가스 단속법에 의해 "고압가스 보안협회"를 설립하여 고압가스기기·용품검사·시설검사·시설기준·가스에 종사자 교육·홍보 계몽을 전담토록 하였으나 가스수요 증가에 비해 그 역할이 미약하여 사고는 60년대에 비해 70년대에는 전체 사고건수는 2.5배가 증가하였으며 LP가스사고는 무려 4배 이상 증가현상을 보였는데 가스별 사고현황을 상세히 보면 다음 표와 같다.

◇ 70년대 가스사고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70년대의 가스사고를 분석해 보면 LP가스 보급의 증가에 비해 가스용품의 안전장치는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급된 가스렌지 등의 연소기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일반 주부들이 완전히 습득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 대표적인 가스사고는 1981년 8월 13일 12시45분경 안양 "대교보신당" 집에서 LP가스 폭발사

[표6] 70년대 가스별 사고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LPG	도시가스	일반가스	합 계
사고건수	99	1	92	192
점유율(%)	53	0.5	46.5	100

※ 도시가스사고 1건은 마감조치 않은 시설의 중간밸브 오조작에 의한 사고임.

[표7] 사용처별 가스 사고현황 (단위 : 건)

구 분	주택	요식업소	공장	허가업소	도로배관	기타	합 계
건 수	22	37	42	60	11	20	192
점유율(%)	12	20.5	23	34	5.3	11	100

※ 주택·요식업소의 사고가 증가한 것은 LPG를 일반가정에 보급률이 증가한 것과 비례함.

[표8] 원인별 가스 사고현황 (단위 : 건)

구 분	취급부주의	불량제품	시설미비	불법고의	기타	합 계
건 수	123	27	25	16	1	192
점유율(%)	64	14	13	8.5	0.5	100

[표9] 형태별 사고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설	폭발	화재	질식	파열	기타	합계
건 수	22	130	32	2	4	2	192
점유율(%)	11	68	17	1	2	1	100

※ 폭발사고가 많은 것은 아세치렌가스 폭발사고가 많은 것 주원인임.

[표10]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구 분	L P G	도시가스	일반가스	합 계
사 망	194	0	53	247
부 상	468	1	565	1,034
계	662	1	618	1,281

고가 발생하여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에 온 손님중 사망 10명, 부상 21명의 인명피해와 지하1층 지상2층인 건물이 완화된 사고가 발생하였고, 동년 12월26일 13:16분 경에 남대문옆 "대한생명" 빌딩 지하 2층 음식백화점 가스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29명이 부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원인은 연소기 철거 후 또는 연소기 미설치한 시설의 마감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였으며, 그 후에도 크고 적은 가스사고가 70년대에 비해 80년대에는 거의 배가 증가한 389건이고 사망이 352명 부상이 178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1980년대의 가스사고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의 가스사고 중 연소기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전체사고의 60% 이상 차지하여 연소기에서 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소기버너에 소화안전장치를 부착하여 생산·판매토록 하여 가스연소기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재점화시나 다른 점화원으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또한 용기를 실내에 보관하여 용기 교체시

[표11] 80년대 가스별 사고현황

(단위 : 건)

구 분	L P G	도시가스	일반가스	합 계
건 수	138	23	36	197
점유율(%)	70	12	18	100

※ 대도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증가하므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표12] 사용처별 가스 사고현황

(단위 : 건)

구 분	취 급 부주의	불 량 제 품	시 설 미 비	불 법 고 의	기 타	합 계
건 수	126	27	31	1	2	197
점유율(%)	64	14	20.5	0.5	1	100

※ LPG와 도시가스가 일반가정의 연료로 보급률 증가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 반면 허가업소는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으로 사고의 감소현상이 발생.

[표13] 원인별 가스 사고현황

(단위 : 건)

구 분	주 택	요 식 업 소	공 장	허 가 업 소	도 로 배 관	기 타	합 계
건 수	66	46	38	17	15	15	197
점유율(%)	34	24	19	9	7	7	100

[표14] 형태별 가스 사고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설	폭 발	화 재	CO중독 질 식	파 열	기 타	합 계
건 수	17	98	61	13	4	4	197
점유율(%)	8	50	31	7	2	2	100

※ CO중독사고가 증가한 것은 우리 나라에 가스보일러 보급이 증가하면서 배기통의 규격미달 및 보일러 설치장소 부적합으로 인한 사고임.

취급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와 용기밸브를 제조·수리하면서 그랜드넛트에 고정 핀으로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어 사용자가 용기밸브를 무리하게 조작해서 그랜드넛트의 이탈에 의한 가스 누설로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당시 사고방지 대책으로는 가스렌지와 조정기 사이에 중간밸브(코크)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가스렌지 점화장치(손잡이)를 윈터치형으로 개발하여 점화장치의 오조작을 방지 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 판매토록 조치하였고, 용기밸브의 수리허가를 폐지하여 수리한 용기밸브는 사용못하도록 하였으며, 제조 시는 그랜드넛트에 고정 핀으로 고정토록 조치하여 용기밸브로 인한 사고 발생률은 상당히 감소되었으며, LPG를 사용하는 모든 장소에서는 용기 옥내보관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안전장치의 개발·보급으로만 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가스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이때부터 가스를 사용하는 주부·학생을 대상으로 가스의 성질과 가스용품의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 순회·계몽교육을

[표15] 피해현황

(단위 : 명)

구 분	L P G	도시 가스	일반 가스	합 계
사 망	61	24	20	105
부 상	560	40	146	746
계	621	64	166	851

실시하고 TV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으나 LPG사고 발생건 수가 감소하지 않는 사유는 가스사용 계층과 가스용품 개발품목의 다양화되므로 그에 대한 가스안전관리 업무가 뒤따르지 못함에도 기인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사용자들이 가스안전에 무관심하고 사용에 편리한 것만 염두에 둔 것이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였다

또한, 가스보일러가 보급되지 않을 때 가스 순간온수기를 가스보일러 대용품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 건수가 많아 순간온수기를 난방용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계법규 및 고시를 제정하여 우리 나라에 최초로 일반가정에 가스보일러가 보급된 것도 이 시기였으며, 가스 배관(호스포함)과 연소기 연결부 중간에 중간밸브를 설치토록 한 것과 가스를 사용하는 영업장소에 가스누설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용기밸브의 그랜드넛트 이탈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랜드넛트 없는 밸브를 개발 보급되었으며,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부착하여 생산·판매토록 하는 등 가스용품의 신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었으며, 홍보·계몽활동도 영상보도를 이용한 홍보의 확대와 행정관청을 통한 회보(반상회보등)에 기재하여 전 국민을 상대한 대민홍보가 활발하게 전개된 전환점이된 시기였습니다.

◇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스가 우리 나라의 대중연료로 자리 잡으면서 가스 사용가구는 전체가구의 98.5%가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와 때를 같이하여 각종 가스에 사용되는 기기며 용품이 거의 국산화되어 우리 손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온 반면 가스사고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90년대를 대표하는 사고는 1994년12월7일14시55분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06번지에 소재한 한국가스공사 아현 지하공급기지에서 가스계량기 보증작업을 하기 위하여 배관내 잔가스 퍼지작업을 하기 위하여 가스 출·입구 전동밸브(MOV)를 차단한 후 방출(퍼지)밸브에 외부로 방출하기 위해 호스를 연결하고 방출밸브를 열어야 하는데 작업자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밸브 실내로 방출하던 중 전동밸브가 이물질(작업복상의, 배관내 잔류 스러치등)에 의해 완전히 폐쇄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스가 유출되어 밸브 실내에 다량 유출되어 원인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사고가 발생해 사망 12명, 부상 10명의 인명피해와 부근 건물 145동이 전소 내지 반파되었고, 차량 93대가 파손된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 해인 1995년 4월28일 07시28분경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영남중·고교앞 지하철 공사장에서 그라우팅작업을 하기 위하여 천공작업 중 증장비 운전기사의 실수로 도시가스 배관을 파손시켜 유출된 가스가 우수토관을 통해 지하철공사장으로 유입되 체류중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인화·폭발하여 사망

자 110명에 부상자201명의 인명피해와 인근 가옥 195동과 차량152대가 파손되고, 지하철복강관 400M가 붕괴된 대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도로 굴착작업중 도시가스 배관 파손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90년대의 대표적 사고가 가스 보일러 사용가구가 급증하면서 시공불량, 설치장소 부적정, 보일러 종류선택 부적합 등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들이 발생하였습니다.

◇ 1990년대의 가스 사고를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1990년대의 가스사고를 분석해보면 타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시 도시가스 배관 파손 사고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대책으로는 공급 배관길이 15Km마다 배관 안전점검원을 배치하여 순찰토록 하고, 도로 굴착작업시는 도시가스회사에 사전협의하고, 도시가스 배관 매설장소 주위 1M이내에는 인력에 의한 굴착을 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 주변에서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굴착 전에 시험 굴착을 하도록 하여 배관 매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배관 매설장소 지면에 "LINE

[표16] 1990년대 가스별 사고현황

(단위 : 건)

구 분	L P G	도시가스	일반가스	합 계
건 수	1,069	604	83	1,756
점유율(%)	61	34	5	100

[표17] 사용처별 가스 사고현황

(단위 : 건)

구 분	주택	요식업소	공장	허가업소	도로배관	기타	합계
건 수	940	191	68	81	307	169	1,756
점유율(%)	53	11	4	5	17	10	100

[표18]원인별 가스 사고현황

(단위 : 건)

구 분	취급부주의	불량제품	시설미비	불법고의	기타	합계
건 수	635	248	499	162	112	1,756
점유율(%)						

[표19]형태별 사고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설	폭발	화재	CO중독 질식	파열	기타	합계
건 수	742	534	232	126	94	28	1,756
점유율(%)	43	30	13	7	5	2	100

[표20]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구 분	L P G	도시가스	일반가스	합 계
사 망	196	197	22	415
부 상	1,537	556	95	2,198
계	1,733	753	117	2,603

MARK”로 표시하고, 중압이상의 가스배관 상부에 보호철판을 덮고, 지하도나 지하철공사 시행 전에 가스 영향평가를 받도록하는등 사고 예방에 많은 법을 보장 실시토록 하였으며, 보일러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기통의 설치방법·설치기준·보일러실 설치기준·시공자격 강화 등의 법을 제정하였으며, 또한 사고 유발자에 대하여 처벌규정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LPG 사고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신규 건축물에 가스배관은 금속관으로 시공하고, 판매방법을 체적판매 체제로 전환하여 공급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정은 자기집 가스시설을 자율적으로 「자율안전점검」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가스 누설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하여 모든 가스시설의 중간밸브를 안전장치가 장착된 “휴즈콕크”설치(1,400kcal/h이하)를 의무화하였으며, LP 가스 용기를 운반할 때는 새워서 운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차량은 행정처분을 요구토록 하여 현재는 운반 차량에 LPG 용기를 눕혀서 다니는 차량이 근절되고 있다.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위해서 가스용품의 안전장치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법을 개정하여 시설 기준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1998년 말 IMF를 맞아 국내의 경제사정이 나빠지

면서 신중의사고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

그 예로는 고의사고와 청소년들의 부탄가스 흡입사고가 대표적인 사고의 형태이다.

◇ 2000년대의 가스사고형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1] 2000년대 가스별 사고현황

(단위 : 건)

구 분	L P G	도시가스	일반가스	합 계
건 수	148	21	7	176
점유율(%)	84.1	11.9	4	100

[표22] 사용처별 가스 사고현황

(단위 : 건)

구 분	주택	요식업소	공장	허가업소	공급시설	기타	합계
건 수	104	20	6	9	7	30	176
점유율(%)	59.1	11.4	3.4	5.1	4	17	100

[표23] 원인별 가스 사고현황

(단위 : 건)

구 분	취급부주의	불량제품	시설미비	불법고의	기타	합계
건 수	55	21	49	36	15	176
점유율(%)	31.3	11.9	27.8	20.5	8.5	100

[표24] 형태별 사고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설	폭발	화재	CO중독 질식	파열	기타	합 계
건 수	13	102	35	14	11	1	176
점유율(%)	7.4	58	20	7.9	6.2	0.6	100

[표25]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구 분	L P G	도시가스	일반가스	합 계
사 망	23	2	2	27
부 상	251	20	19	290
계	274	22	21	317

- 2000년대 접어들어 전체 가스사고 발생율은 많이 감소하고 있으나, LPG가스 사고는 감소되지않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빈도가 전체사고의 절반을 넘고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LPG 가스 안전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들을 마련되어야 하나, LPG 공급자들의 인식 전환하기가 쉽지않고, 특히 소비자들의 안전문화 수준이 향상이 되지않고서는 아주 어려운실정입니다.

그 실례로서 정부에서 제정한 LPG체적거래제 도입과 LPG안전대책 등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지만 시행하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는 것도 공급자와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 현상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정부정책이 지속적이지 못하는데도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정책을 수행하면서 조그만 저항만 있으면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또한 정책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않고 단시간에 목표 달성하려는 것이 실패의 원인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정책도 정착만 되면 가장 좋은 제도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시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목표 달성 될 때까지 밀고 나아가야한다.

정부에서는 가스 안전대책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수립 후 국민들에게 끊임없는 개도와 일반인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실행했을 때 어떤 이득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하고, 설비비도 현재는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므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스를 사용하는 우리 스스로 자기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한 곳이 발견되면 자발적으로 개선하며, 안전장치 등이 개발·보

급되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자기 집에 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는 스스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가스공급업소에 종사하는 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시설은 철저히 점검하고 사용상 위해요소가 발견되었을 때는 수요자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서로가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안전공급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나라의 가스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으며, 가스가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연료로 자리를 잡게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서로 불신하고 사고가 발생되면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풍토가 하루속히 사라지고 또한 우리 모두 가스시설 철저히 점검하는 점검원이 되면 우리가정에 행복과 가스사고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